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 남녀차이

김 범 준*

경기대학교 ·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강간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에 있어서 성차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강간에 대한 위험도 지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차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강간을 심각한 범죄로 지각했으나, 그 발생빈도는 비교적 높지 않게 판단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낮게 추정했지만, 자신보다는 타인의 피해확률을 높게 보았다. 또한 위험도 인식에 있어서 성차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강간을 더 심각하게 보고, 더 높은 발생빈도를 추정했으며, 자신들이 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남자보다 높다고 추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4가지 유형의 동성과 이성간 강간 사례를 주고 각 강간 사례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처벌에 대한 가치 판단과 행위 원인에 대한 귀인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강간을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를 매우 기질적 원인이라고 귀인하는 반면에 상황적 귀인의 수준은 중간정도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도 역시 성차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4가지 유형의 강간 사례에 있어서 남성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비도덕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더욱이 더 무거운 양형을 부과하였다. 한편 4가지 유형 중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 특히 여자 판단자들에게 이 같은 성차 효과가 극대화 되어 나타났다. 동성강간의 경우, 남자 판단자는 남자 동성보다 여성 동성에 대해 더 관대한 양형을 부과했으며, 남자 가해자에 대해 더 기질적으로 귀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강간, 동성 강간과 이성 강간, 가치 판단, 처벌, 성차

범죄란 무엇일까? 협의적 측면에서 보면, 범죄란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로 대체로 법률적으로 규정된다. 즉, 어떤 행위이건 그것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 등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어야 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그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이윤호, 2002). 그래서 범죄란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행위를 말한다(Haskell & Yablonsky, 1983).

그런데 범죄의 정의를 범조문에서만 찾지 않은 경향도 있다. 즉, 법이란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각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 목표, 규칙, 그리고 가치들이 우리의 생활의 원리가 되

* 교신저자 : 김범준,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교양교직학부
E-mail : kimbj@yonsei.ac.kr

본 논문을 읽고 세심한 지적을 해준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 때문에 단순한 범조문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위 규범이나 가치가 법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Shepherd, 1981). 즉,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였던 행위도 사회의 규범과 가치가 바뀌면 범죄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Seagel, 1941). 좀 더 넓게 보면, 어떤 문화에서 범죄가 되는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범죄행위가 안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항상 범죄가 되는 보편적 개념에서 범죄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Sellin, 1938).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변하면 범조문이 바뀌기도 하고 성문법이 없는 곳에서는 판례로 남아 그것이 지켜진다. 즉, 범죄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 개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마약이나 탈세가 오늘날 범죄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혹은 미국사회에서 과거에는 흑인을 가르치는 것이 범죄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이윤호, 2002).

우리 경우에도 이 같은 변화의 물결에 놓여 있는 범죄를 다양하게 거론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강간이다. 강간은 전통적 범죄에 속하는 매우 고전적인 범죄행위이다. 강간이란 강력범죄의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교라고 할 수 있다. 강간범죄의¹⁾ 최근 동향을 보면, 1976년에 3,087건에서 2005년 11,757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3.8배가 증가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2004년과 2005년만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5.9% 증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06).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강간범죄가 그 속성상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김상균, 2007; 이윤호, 2002; Miller, 2002).

이 같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이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을 형법에서 다루고 있다. 형법 297조에 따르면,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강간피해의 대상자를 여성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해석에만 따른다면, 강간죄는 남성이 여성에게 피해를 입히

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현대의 법 해석 측면에서 강간을 협의 혹은 광의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히 일부 여성학자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는 입장에서는(주로 여성학자적 입장) 강간과 관련되는 성폭력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 형태나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적인 성 행위라고 보고 있다(이명선, 1989).

동성애

최근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에 관한 개념이 급변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만 봐도 사랑이나 성관계는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 개념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십년 사이에 세계는 사랑과 성에 대한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90년대에 한국에서조차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효과는 범죄심리학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성행동 행태에 비추어 본다면, 강간의 문제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의 구성과 그 양형, 그리고 범죄여부 등과 관련된 일련의 강간과 관련된 판단에 관한 연구들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 지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위험 지각 수준이 세대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인철과 김범준(2005)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사건들의 표상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성연애자에 대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의 2차원 상에서 기성세대와 대학생이 그 심각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발생가능성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에 비해 일반인들이 더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여자에 비해 남자들이 더욱 더 동성애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동성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세대차이와 성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동성애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들이 동성애를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성간의 성폭행의 경우, 여성간의 성폭행보다는 남성간의 성폭행이 더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95년 범죄통계에 보고된 사건이 150건이었던 것

1) 여기서는 강간 및 성폭력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것임.

에 반해 1996년에는 23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9년의 경우 영국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남성간의 동성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Coxell, King, Mezey, & Gordon, 1999).

국내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는 군대내 성폭력과 관련된 것이다. 군대내 성폭력은 오랫동안 우리의 사회 저변에 있었을 법한 내용의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그 실상을 보여주는 실체적 자료가 공개되었다. 그 한 예가 국가 인권 위원회의 보고서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2004)의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인 군대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7월의 군대내 성폭력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한 사병의 자살과 같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제한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5.4%였으며, 직접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과 관련된 사건이나 범죄가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상은 더욱 더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군대의 성폭력 문제처럼, 현대의 다양한 성 행동 행태를 고려한다면,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한 접근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전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강간 죄의 경우, 가해자는 남자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강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동성 간의 강간 혹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간범죄에 대한 가치 판단과 처벌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은 법률이외에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성과 관련된 사회적 기준이 바뀌고 있다면, 강간과 같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한 가치적 판단과 같은 사회적 기준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치와 태도는 여러 가지 사회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

가치란, 특정한 형태의 행동이나 존재양식이 다른 형태의 행동이나 존재양식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나 신념을 나타낸다(황규대, 박상진, 이광희, 이철기, 1999). 그러므로 강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가치적 신념이나 믿음 그리고 태도 등이 어떤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범죄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간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로 많이 연구되어 왔던 개념으로는 강간 통념, 성 고정관념,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백승경, 김기범, 2003; 윤병해, 고재홍, 2006; 이진호, 강혜자, 2005; 이석재, 최상진, 2001; Frese, Moya, & Megias, 2004; Aderson, 2007).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rape myth)이란 주로 강간의 발생 등과 관련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말한다(윤병해, 고재홍, 2006; 이진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은 강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피해자의 책임도 크거나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피할 수 있다는 왜곡된 남성중심의 합리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생각은 강간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혹한 판단을 완화시키게 된다. 이 같은 결과로 강간통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 강간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석재, 1999; Koss, Leonard, Beezley, & Oros, 1981).

성역할 태도와 강간통념 역시 관계가 있다. 강간범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을 해본 경험자들의 경우 응답한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Malamuth, 1981). 그리고 강간통념과 보수적 성 역할 고정관념과도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적 성고정관념을 가진 여성일수록 흔히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을 믿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Klemmack & Klemmack, 1976), 강간에 더 허용적이었다(Burt, 1980).

황인정(2007)은 직접적으로 강간사건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을 알아보았다. 그는 각 범죄 행위에 따라 이 같은 철학 혹은 가치 판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 결정에 성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즉, 그는 기본적인 강력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성, 응징과 관련된 규범과 법률적 측면 그리고 양형 판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범죄자에

대해 인과응보(因果應報)적 응징을 해야 한다고 보고,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더 무겁게 부과하였다. 더욱이 피해자가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더욱 더 범죄에 대한 판단이 보수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범죄의 판단에 있어서 성차가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범죄 사례 중 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강간사건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판단자의 성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건사례는 피해자 변인의 경우 양성(성)이 모두 사용되었으나 가해자 변인은 남성의 사례만을 제시하여 설명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강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성애 측면에서 본다면, 남성이 피해자가 되거나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면 그에게 부과되는 반대급부는 바로 처벌이다. 처벌 역시 사람들이 처벌에 대해 어떤 철학 혹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진다. 심리학에서 처벌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되어 왔다. 즉, 처벌이 얼마나 정확한가의 문제와 직결된 처벌의 일관성(김관현, 2000; 박광배, 홍성진, 1993), 피해의 크기의 영향(Thomas, Cage, & Foster, 1976), 전과, 매력, 성품, 성별 등과 같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징(고재홍, 1994; 김지현, 1992; 손지선, 이수정, 2007; Dion, 1972; Drout & Gaertner, 1994; Rye, Greatrix, & Enright, 2006) 등 매우 다양하다.

강간에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두 집단 즉, 가해자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특성 혹은 피해자의 처우나 충격완화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동성강간이나 이성강간의 측면에서도 물론 이 같은 연구들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되는 부분은 강간의 가해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가치적 판단이나 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판사들의 처벌 철학(punishment philosophy) 혹은 가치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Bartol, 1991; Hogarth, 1971; McFatter, 1982). 이 같은 처벌과 관련이 있는 기준은 몇 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피고에게 잘못했음을 깨우치게 할 만큼의 벌을 줌으로써 그가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갱생(rehabilitation)”, 둘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는 가해자가 지은 죄의 크기 만큼 벌을 내려야한다고 보는 “응보(retribution)”, 그리고 셋째, 가해자가 벌이 무서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지(deterrence)”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주로 수감시키는 것)는 “무력화(incapacitation)”를 들 수 있다(고재홍, 1995). 그러므로 강간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이 같은 가치가 강간의 유형, 즉 동성간의 강간 혹은 이성간의 강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강간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해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 사랑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성범죄의 한 유형인 강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한 초기적 시도로 본 연구에서는 동성과 이성간 강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가해자 행위에 대한 귀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이 같은 판단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1에서는 강간범죄에 대한 위협도 지각에 대한 일반적인 위협도 인식과 이에 대한 성차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강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각 강간 사례의 범죄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가해자 행위에 대한 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판단에 있어서 성차가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1 : 위협도 인식 - 남녀차이

연구 1에서는 강간범죄의 위협도 지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의 차이가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방 법

피험자

서울 소재 H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119명(남자 59명, 여자 60명; 평균 연령 21.25세)의 학부생들이 부분 학점 이수를 위해 조사에 참가하였다.

조사내용

강간이라는 범죄 명을 제시하고 강간범죄의 심각성, 발생빈도,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피해확률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범죄의 심각성은 강간이라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1) 전혀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 - ‘(7)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의 7점 척도상에 판단하도록 하였다. 범죄의 발생빈도 역시 ‘(1)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7) 매우 자주 발생한다’의 7점 척도상에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피해 확률은 각 범죄에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률을 0%에서 100% 사이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간의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유무,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 및 절차

심리학 관련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은 범죄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강간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설문지를 받고 난 후 내용을 보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매우 간단한 조사이며, 2주 후에 연속적인 범죄관련 조사가 있을 것 이라고 소개했다. 이것은 조사 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학생들이 소홀히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2주후에 자료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조사 후 이 같은 내용을 응답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는가를 묻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응답은 자신에게 제시된 범죄명만을 보고 그 범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대로 답하면 된다고 소개하고 개별적으로 질문지에 답하였다.

결과 및 논의

먼저 강간의 가해와 피해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모두가 가해와 피해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이 같은 응답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응답자들이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응답했다고 볼 수 있겠다.

강간을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는가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6.38(0.88)이었다. 중간 값인 4를 기준으로 일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여 비교적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8)=29.383, p=.000$. 강간에 대한 심각성에 있어서, 남자는 6.25(0.94)였던 것에 반해 여자는 6.50(0.81)이었다.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남녀 간에 심각성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7)=1.53, p=.130$.

발생빈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4.38(1.64)로 중간 값인 4에서 유의미하게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여 보통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109)=2.44, p=.016$, 그렇게 발생빈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3(1.47)이었던 것에 반해 여자는 4.82(1.70)로 두 집단 모두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t(108)=2.96, p=.004$. 이 같은 결과는 아마도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주로 강간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여자들에게 강간이 더 밀접한 사건들로 더 가용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추론은 피해 가능성 추론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다. 강간을 자신이 당할 즉, 자신이 피해자가 될 확률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17.85(22.05)로 매우 낮았다(그림 1 참조). 이것은 중간 값인 50보다 매우 낮은 점수로 매우 낮은 확률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t(118)=15.91,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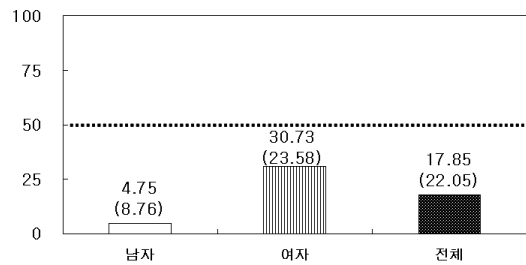


그림 1. 자신의 피해확률 추정(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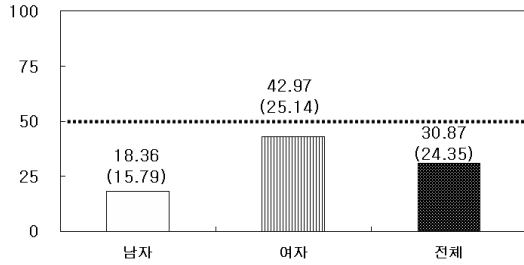


그림 2. 타인의 피해확률 추정(성별)

그러나 이 같은 추정은 남녀에 따라 매우 달랐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자신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4.75(8.76)로 추정하는 것에 비해 여자들은 자신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30.73(23.58)으로 추정하였다. 즉,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7)=7.94, p=.000$.

또한, 타인이 강간이라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확률 역시 전반적으로 자신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확률과 비슷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평균이 30.87(24.35)로 중간 값인 50에 비해 여전히 유의미하게 낮았다, $t(117)=8.53, p=.000$. 그리고 타인이 강간 피해자가 될 확률 역시 자신의 피해확률 추정과 같이 성별에 따라 그 확률 추정이 달랐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자가 18.36(15.79)인 것에 반해 여자는 42.97(25.14)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t(117)=8.53, p=.000$.

그러나 자신과 타인의 피해확률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자신보다는 타인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더 높게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결과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반복측정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과 타인 피해확률추정간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자신이 피해자가 될 확률 ($M=17.85$)보다 타인이 피해자가 될 확률($M=30.87$)을 더 높게 추정하였다, $F(1, 116)=78.56, p=.000$. 또한 이 같은 차이는 남자($t(57)=6.53, p=.000$)나 여자($t(59)=6.00, p=.000$) 모두 자신에 비해 타인의 강간피해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이것은 자신에게는 타인보다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낙관

적 사고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낙관론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정신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낙관론은 암과 같은 질병, 대학생활, 그리고 기타 건강 등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정신적 기제라고도 할 수 있다(유은상, 2004; Aspinwall & Taylor, 1992; Carver, Pozo, Harris, Noriega, Scheier, Robinson, Ketcham, Moffat, & Clark, 1993).

연구 2 : 강간사건에 대한 가치판단 - 남녀 차이

연구 1에서는 강간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살펴보았다. 즉, 강간이란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이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강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성차효과를 알아보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간이라는 범죄명 자체가 가지는 효과와 이에 대한 성차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범죄를 판단하는데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보다는 그(녀)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가의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2에서는 강간사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성차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즉, 강간 사건의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가해자 행위에 대한 귀인 경향과 이에 대한 성차효과를 살펴 보았다.

또 다른 연구문제는 강간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 차에 따른 사람들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15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 중의 하나는 동성애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가 최근 시작된 현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담론으로 비교적 자유스럽게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동성애가 학문적으로는 더 이상 이상행동의 범주에도 들지 않으며, 개개인의 성에 대한 성향으로 다루 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강간과 관련된 주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부부간 성폭력이라거나 동성애자의 강간과 관련

된 주제라고 하겠다. 물론 본 연구가 동성애자에 대한 강간과 관련된 최초 연구는 아니다. 황인정(2007)은 남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건과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즉, 그의 연구가 남성 동성애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여성 동성애자와 비록 많지는 않겠지만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건은 다루지 못했다. 이 같은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여 본 연구는 동성과 이성 모두를 다루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동성 간의 강간사건과 이성 간의 강간사건에 대한 남자와 여자 판단자들의 가치판단과 처벌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행위 귀인 등을 고찰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H 대학교와 경기도 소재 K와 H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585명(남 : 278명, 여, 307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 중 145명(남 67명, 여 78명)은 남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조건, 138명(남 62명, 여 76명)은 남자 가해자-여자 피해자 조건, 148명(남 72명, 여 76명)은 여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조건, 그리고 154명(남 77명, 여 77명)은 여자 가해자-여자 피해자 조건에 대한 내용을 받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부분 이수학점을 위해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5세이었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가해자의 성별(집단 간 변수 : 2)×피해자의 성별(집단 간 변수 : 2)×판단자의 성별(집단 간 변수 : 2)의 요인설계이다.

절차

설문은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시간에 실시되었다. 수업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4 종류로 이루어졌다. 사건은 모두 강간 사건이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남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2) 남자 가해자-여자 피해자, 3) 여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4) 여자 가해자-여자 피해자.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알아보고자하는 것이라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참가 학생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설문이나 연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료 수집을 마쳤다.

설문내용

사건내용 : 강간 사건에 대한 간단한 스크립트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성/여성)이 20대 초반의 (남성/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관계였고 (남성/여성)은 심하게 반항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피해 (남성/여성)은 그 사건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신체적인 상처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어야만 했다.

종속변인

제시된 각 범죄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I) 범죄에 대한 가치 판단 : 범죄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알아보았다.

i) 행위의 적절성 판단 : 범죄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알아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이라는 법칙이 있다(황인정, 2007). 인간도 동물이기에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각 사건들에서 보여준 행동이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1)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 (9)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ii) 행위의 도덕성 판단 :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할 때 이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경우 비도덕적인 행동이지만, 어느 정도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 사례를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당신의 판단은?”이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1) 매우 도덕적인 행동이다 - (9) 매우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II)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가치 판단 : 고재홍(1995)이 분류한 갇생, 응보, 제지, 그리고 무력화의 처벌 철학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지, 어떤 처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교정 후 사회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교정의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처벌에 대한 가치적 판단을 살펴보았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구체적인 양형 정도를 알아보았다.

i) 처벌의 당위성 :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관점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어떤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적 혹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황인정, 2007). 이 같은 차원에서 사건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과 같은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 전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 - “(9) 매우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ii) 법률적 처벌에 따른 응징 : 법률적으로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와 같은 방식으로 응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1) 매우 반대한다” - “(9) 매우 동의한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iii) 범죄자에 대한 교정후 사회복귀 의지 : 범죄자를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하고 이에 대해 “(1) 매우 반대한다” - “(9) 매우 동의한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iv) 양형 : 마지막으로 이 같은 강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양형을 부과해야 하는가를 9단위 혹은 사형과 무기 중 하나를 택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III) 범죄 행위에 대한 귀인 : 강간을 한 가해자의 행위가 기질적인 요인 때문인가와 상황적인 요인 때문인가를 각각 질문하고 이에 대해 “(1) 전혀 기질적 원인(상황적 원인) 때문이 아니다” - “(9) 매우 기질적 원인(상황적 원인) 때문이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본 연구 2의 목적이 강간사건에 대한 간단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과 처벌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귀인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

문에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범죄에 대한 가치적 판단

행위의 적절성

강간이라는 사건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평균이 8.02(1.69)로 예상했던 것처럼 강간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응답자들이 보고 있었다.

이 같은 판단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의 성(2)×피해자의 성(2)×판단자의 성(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단자의 성별의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다른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판단자의 성 : $F(1, 571)=33.62, p=.000$. 즉, 남자들의 경우 평균이 7.60(1.98)인 것에 반해 여자들은 평균이 8.39(1.26)를 나타내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강간 사건을 더욱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강간사건이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이며, 여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여성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볼 때,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욱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경향은 이후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행위의 도덕성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강간이라는 범죄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강간을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볼까? 이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 전체 평균을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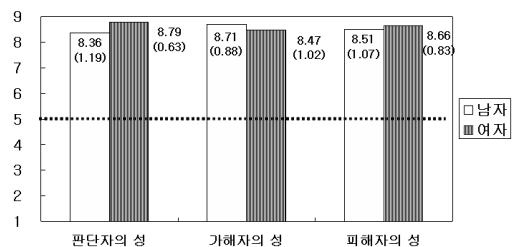


그림 3. 강간 행위의 도덕성 평정³⁾

- 2) 값이 적을수록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함.
- 3) 값이 적을수록 도덕적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함.

보았다. 그 결과, 평균이 8.59(0.96)로 강간을 매우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판단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의 성(2)×피해자의 성(2)×판단자의 성(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단자 성, 가해자 성, 그리고 피해자 성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판단자 성 : $F(1, 573)=31.82, p=.000$; 가해자 성 : $F(1, 573)=9.84, p=.002$; 피해자 성 : $F(1, 573)=4.17, p=.042$). 그러나 다른 상호작용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들($M=8.36$)에 비해 여자들($M=8.79$)이 강간을 더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강간의 가해자가 여자($M=8.47$)일 때보다는 남자($M=8.71$)인 경우에 더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강간의 피해자가 남자($M=8.51$)일 때 보다는 여자($M=8.66$)일 때 더 비도덕적인 행위로 판단하였다.

처벌에 대한 가치적 판단

처벌의 당위성

세상의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강간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이 7.70(1.64)으로 매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 같은 판단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의 성(2)×피해자의 성(2)×판단자의 성(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단자 성, 가해자 성, 그리고 피해자 성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판단자 성 : $F(1, 573)=25.99, p=.000$; 가해자 성 : $F(1, 573)=11.21, p=.001$; 피해자 성 : $F(1,$

$573)=24.77, p=.000$). 그러나 다른 상호작용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들($M=7.34$)에 비해 여자들($M=8.03$)이 강간 행위를 더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으며, 강간의 가해자가 여자($M=7.49$)일 때보다는 남자($M=7.93$)인 경우에 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정하였다. 그리고 강간의 피해자가 남자($M=7.39$)일 때 보다는 여자($M=8.01$)일 때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적 처벌에 따른 응징

법을 어기면 사회에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한다. 이 처벌 중 현대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과 이보다는 약하지만 남은 삶을 계속 구속하는 무기형의 처벌과 같은 방식의 처벌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이 4.94(2.33)로 중간 정도의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강간이라는 범죄가 매우 비도덕적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의 목숨을 거두거나 영원한 인신구속과 같은 처벌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동의정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의 성(2)×피해자의 성(2)×판단자의 성(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단자 성, 가해자 성, 피해자 성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가해자의 성과 피해자의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판단자 성 : $F(1, 573)=11.45, p=.001$; 가해자 성 : $F(1, 573)=20.88, p=.000$; 피해자 성 : $F(1, 573)=11.59, p=.001$; 가해자 성×피해자 성 : $F(1, 573)=47.63, p=.002$). 그러나 나머지 다른 상호작용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들($M=4.59$)에 비해 여자들($M=5.26$)이 강간 행위에 대한 사형과 무기와 같은 법적 처벌에 더 동의했으며, 강간의 가해자가 여자($M=4.53$)일 때보다는 남자($M=5.38$)인 경우에 더 위와 같은 처벌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강간의 피해자가 남자($M=4.64$)일 때 보다는 여자($M=5.24$)일 때 더 사형과 무기와 같은 처벌에 동의하였다.

한편,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조건에 비해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 더 사형이나 무기형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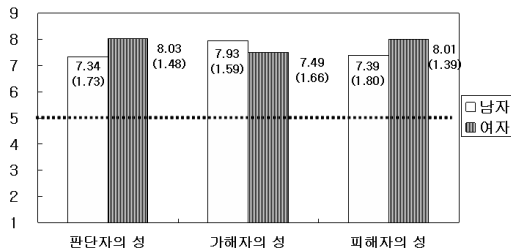


그림 4. 강간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 평정4)

4) 값이 클수록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1. 강간에 대한 처벌 동의 정도⁵⁾

조 건	성별	평균(SD)	F 값
판단자의 성	남	4.59(2.28)	11.45*
	여	5.26(2.33)	
가해자의 성	남	5.38(2.33)	20.88*
	여	4.53(2.25)	
피해자의 성	남	4.64(2.26)	11.59*
	여	5.24(2.33)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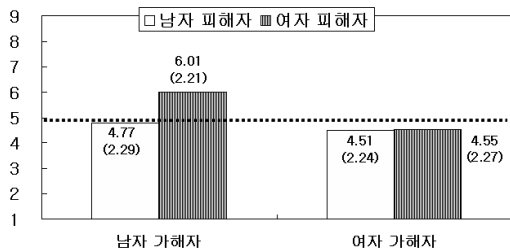


그림 5. 강간에 대한 처벌 동의 정도 : 가해자/피해자 성별

법적 처벌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추후 논의 하겠지만, 강간이 주로 남성에게 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범죄의 전형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동성간의 강간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에 덜 동의하며, 심지어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다고 해도 동성과 같은 정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동성애가 더욱 보편화 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판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범죄자에 대한 교정 후 사회복귀 의지

범죄자를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의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이 5.36(2.57)으로 중간 값인 5보다 유의미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t(580)=3.35, p=.001$, 중간 수준이상으로 교정 후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값이 클수록 더 동의함을 의미함.

표 2. 강간범죄자의 교정후 사회복귀 의지 정도⁶⁾

조 건	성별	평균(SD)	F 값
가해자의 성	남	4.86(2.67)	21.12***
	여	5.82(2.34)	
피해자의 성	남	5.62(2.53)	6.79**
	여	5.10(2.58)	

** $p < .01$, *** $p < .001$

이 같은 동의정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의 성(2)×피해자의 성(2)×판단자의 성(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단자의 성, 가해자의 성, 피해자의 성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가해자의 성과 피해자의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가해자 성 : $F(1, 573)=21.12, p=.000$; 피해자 성 : $F(1, 573)=6.79, p=.009$; 판단자 성×피해자 성 : $F(1, 573)=3.73, p=.054$; 가해자 성×피해자 성 : $F(1, 573)=18.23, p=.000$). 그러나 판단자 성의 주 효과와 나머지 다른 상호작용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강간의 가해자가 여자($M=5.82$)일 때 남자($M=4.868$)인 경우보다 더 교정을 하여 사회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간의 피해자가 여자($M=5.24$)일 때 보다 남자($M=5.62$)일 때 그 가해자를 교정 후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것에 더 동의했다.

한편,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별은 판단자나 가해자의 성별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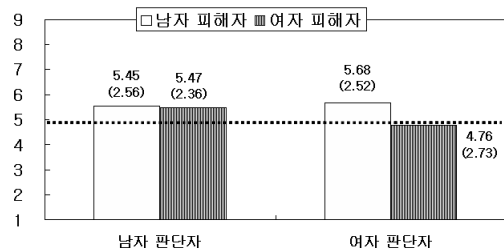


그림 6. 강간에 대한 교정 후 복귀의지 정도 : 판단자와 피해자 성별

6) 값이 클수록 더 교정 후 사회복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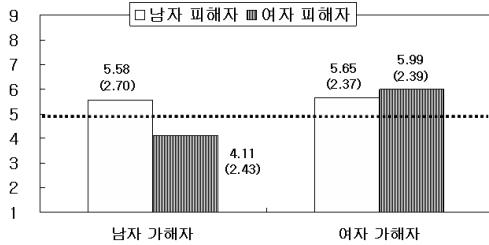


그림 7. 강간에 대한 교정 후 복귀의지 정도 :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여, 남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보다 여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 여자 판단자들이(M=4.76) 다른 조건에 비해 교정 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에 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 비해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M=4.11) 교정 후 사회에 복귀 시키려고 하지 않는 정도가 더 강했다.

강간 범죄에 대한 양형

실제로 양형의 결정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본 연구 2에서는 매우 간단한 강간 시나리오만을 보고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최소의 정보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양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응답자들이 반응한 양형은 매우 다양하였다. 사형이라고 기입한 응답자가 1명으로 이는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기형의 경우는 17명이었는데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 5명,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 7명,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 2명,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가 3명으로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응답을 제외한 년 수를 제시한 응답만을 자료 처리 하였다. 자료처리를 하기 전에 응답 중 30년이 넘는 경우에는 30년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30년을 정한 것은 현행 형법 상 중폭 범죄를 저질러 양형이 합산되는 경우 25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을 상한선으로 정하였다.

먼저, 전체 평균의 경우 14.52(19.16)년으로 실제 법정형에서 강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양형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양형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어

7) 물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형이며, 강간(추행)치상이나 치사의 경우에는 5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의 형을 주도록 되어 있다.

표 3. 강간 사건에 대한 양형

조 건	성별	평균(SD)	F 값
판단자의 성	남	11.93(18.98)	9.48**
	여	16.89(19.06)	
가해자의 성	남	17.92(21.69)	16.18***
	여	11.38(15.88)	
피해자의 성	남	12.55(17.77)	6.12*
	여	16.45(20.78)	

* $p < .05$, ** $p < .01$, *** $p < .001$

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의 성(2)×피해자의 성(2)×판단자의 성(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단자 성, 가해자 성, 피해자 성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3변수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판단자 성 : $F(1, 545)=9.48, p=.002$; 가해자 성 : $F(1, 545)=16.18, p=.000$; 피해자 성 : $F(1, 545)=6.12, p=.014$; 판단자 성×가해자 성×피해자 성 : $F(1, 545)=8.39, p=.004$). 그러나 나머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들(M=11.93)에 비해 여자들(M=16.89)이 강간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양형을 부과했으며, 강간의 가해자가 여자(M=11.38)일 때보다는 남자(M=17.92)인 경우에 더 높은 양형을 결정했다. 그리고 강간의 피해자가 남자(M=12.55)일 때 보다는 여자(M=16.45)일 때 더 무거운 양형을 부과하였다.

또한 그림 8에 나타난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과 더불어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양형이 달라졌는데, 여자가 강간 사건에 대해 양형을 결정한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M=27.00)에 다른 조건에 비해 배에 가까운 무거운 양형을 부과하였다. 한편, 남자들은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 가장 무거운 양형을 부과했으며(M=15.19),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M=7.28)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형을 결정하여 비교적 다른 강간 유형에 비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남자들의 경향은 황인정(2007)의 연구 결과와도 같았다.

범죄행위에 대한 귀인

행위의 귀인

가해자의 강간 행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질적 원인과 상황적 원인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먼저 기질적 원인에 대한 귀인 정도를 보면, 전체 평균이 7.71(1.62)로 매우 기질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 같은 기질 귀인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의 성(2)×피해자의 성(2)×판단자의 성(2)의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꾸어 말하면, 모든 조건에서 기질적 요인의 점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체 평균이 7.71로 상당히 기질적인 것으로 강간 행위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성에서 강간 행위란 매우 기질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보여진다.

이에 반해, 강간의 가해자의 행동원인을 상황적 요인에 귀인하는 정도는 전체 평균이 4.44(2.48)로 비교적 상황적 요인 보다는 기질적 원인에서 더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황귀인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 성(2)×피해자 성(2)×판단자 성(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판단자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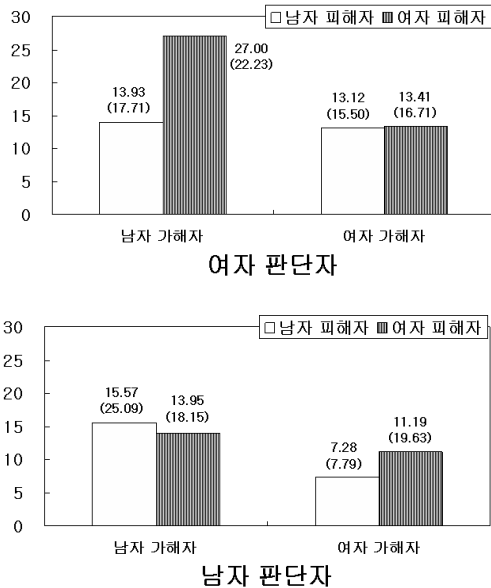


그림 8. 강간 사건에 대한 양형(판단자/가해자/피해자 성별)

표 4. 강간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상황귀인⁸⁾

조 건	성별	평균(SD)	F 값
판단자의 성	남	4.20(2.36)	5.18*
	여	4.65(2.51)	
피해자의 성	남	4.71(2.54)	7.05**
	여	4.16(2.39)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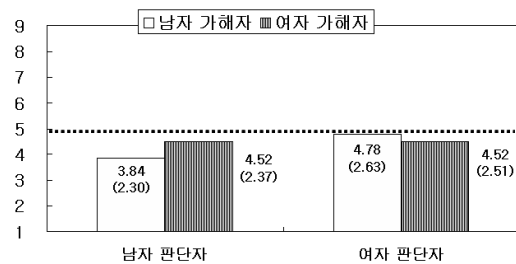


그림 9. 강간 가해자에 대한 상황적 귀인 정도(판단자/가해자 성별)

피해자의 성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가해자의 성과 피해자의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판단자 성 : $F(1, 574)=5.18, p=.023$; 피해자 성 : $F(1, 574)=7.05, p=.008$; 판단자 성×가해자 성 : $F(1, 574)=5.60, p=.018$). 그러나 가해자 성의 주 효과와 나머지 다른 상호작용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들($M=4.20$)에 비해 여자들($M=4.65$)이 더 강간 가해자의 행위를 상황적으로 귀인하였다. 그리고 남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M=4.71$)보다 여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M=4.16$) 더 가해자의 행위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9에 나타난 것처럼, 강간의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에 여자들($M=4.78$)에 비해 남자들($M=3.84$)이 덜 상황적으로 귀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8) 값이 클수록 더 교정 후 사회복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회에서 성관련 범죄인 강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 판단과 이에 대한 성차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강간이라는 일반적인 범죄명을 제시하고 그 위험도 지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강간을 심각한 범죄로 지각하고 있었지만, 그 빈도는 중간 정도로 발생빈도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신 혹은 타인이 강간 범죄의 피해를 입을 확률을 추정하도록 하였는데, 둘 모두에서 비교적 낮은 피해확률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자신보다 타인의 피해확률을 높게 추정하여 자신에 대한 낙관론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강간 사건에 대한 위험 지각 정도는 성차 효과가 나타났다. 위험도 지각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강간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서 강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민감하고 두려운 범죄라고 강간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강간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강간 범죄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가치판단 그리고 행위의 원인에 대한 귀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대한 성차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강간은 매우 부적절하며,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법률적 처벌에 있어서, 사형이나 무기와 같은 극단적 처벌을 지양하였다. 그리고 교정 후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의지는 중간정도를 나타냈다. 양형의 경우에는 14.52년 정도의 양형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행위원인에 대해 기질적 귀인을 더 강하게 나타냈다.

연구 2에서 다루었던 이성과 동성강간의 경우에서도 전반적인 가치 판단과 양형 수준에서 역시 성차가 발생하였다. 즉, 동성이나 이성 강간 사례 모두에서 강한 성차를 보였다. 그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이 강간을 더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가해자가 여성일 때보다는 남성일 때, 그리고 피해자가 남성일 때보다는 여성일 때,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덜 상황적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인식 속에 강간이라는 범죄가 남

자에 의해 여자에게 가해지는 범죄 행위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강간은 여전히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이 더욱 민감하게 바라보는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성애의 원인이 기질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관계에 대한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한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양형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 가장 무거운 양형을 부과하였으나 다른 형태의 강간에 대해서는 비슷한 양형 수준을 보였다. 또한 동성과 이성 강간의 측면에서 보면, 동성강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여자가 여자를 강간했을 때보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 더 무거운 양형을 부과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동성에 특히 여성들의 동성애보다는 남성들의 동성애에 조금 더 부정적이며, 여성이 강간의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 조금은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황인정(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 연구가 동성과 이성강간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연구이므로 앞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보다 깊은 메카니즘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양형은 그 결정에 관계되는 전문가 집단들이 고민해야할 문제였다. 즉, 자신들의 판단이 올바르고 정확하며, 일관적이 되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양형 결정이 일관성이 없으며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박광배, 홍성진, 1993). 법조인들만이 양형에 관계된다고 하면 이 같은 지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 집단을 잘 훈련시키면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에 개정된 사법개혁제도에 따르면,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배심원이란 매우 평범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제도보다는 더욱 양형 일관성이 라거나 정확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추후 배심원제도를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배심원들의 성과 피해자의 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가치관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양형 결정에 있어서 판단자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을 초보적으로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례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범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의 하나는 양형이다. 그러므로 양형의 결정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변수들이 양형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건사례별로 나누어 양형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다른 측정치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성 강간의 경우에는 법률적 응징과 교정 후 사회복귀 의지가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남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사례, $R^2=.31$, $F(2, 129)=28.64$, $p<.001$; 여자 가해자-여자 피해자 사례, $R^2=.23$, $F(2, 147)=22.36$, $p<.001$). 이에 반해 이성강간의 경우에는 이 두 변인을 포함하여 판단자의 성이 유의미한 설명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며, 거기에 덧붙여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기질적 귀인 변인이 역시 유의미한 설명 변수로 추가되었다(남자 가해자-여자 피해자 사례, $R^2=.32$, $F(4, 125)=14.54$, $p<.001$; 여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R^2=.35$, $F(3, 131)=23.20$, $p<.001$).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4가지 조건 모두에서 법률적 처벌에 따른 응징(사형/무기)과 교정 후 사회 복귀 의지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형을 결정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응징하여야 한다고 보는 판단과 교정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가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판단자가 강간행위에 대해 응징해야한다고 생각할수록, 교정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양형은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양형을 결정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교정과정을 거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행위를 얼마나 응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판단자의 가치나 태도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4가지 조건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동성을 강간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이성을 강간한 경우이다. 전자인 동성의 경우는(남자 가해자-남자 피해자/여자 가해자-여자 피해자) 양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단지 법률적 처벌에 따른 응징(사형/무기)과 교정 후 사회 복귀 의지였다. 그러나 이성의 조건 즉, 남자 가해자 - 여자 피해자와 여자 가해자 - 남자 피해자 조건에서는 판단자의 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강간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강간이라는 범죄가 매우 성과 관련된 민감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연구 1에서는 강간이라는 범죄명을 보고 그 위험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강간이라는 사건명에 대한 위험도 지각에서 성차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죄명에는 강간 사건이 동성 강간인지 아니면 이성강간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강간사건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동성강간과 이성강간이라는 사건명을 주고 위험도 지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범죄에 대한 구체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사법제도가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법제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검찰, 변호사, 그리고 경찰 등의 법의 운용이나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 (1994). 가해자 외모와 형량판단간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 68-84.
- 고재홍 (1995).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 29-50.
- 김관현 (2000).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 연세대학교

-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상균 (2007). 범죄심리학. 서울 : 청목 출판사.
- 김지현 (1992). 법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선고목적 선호와 형량결정 과정에 미치는 선고맥락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박광배, 홍성진 (1993).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판결 및 선고의 일관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 73-89.
- 백승경, 김기범 (2003). 강간사건 지각 및 판단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요인분석. 2005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87-188.
- 법무 연수원 (2006). 법무백서. 법무 연수원.
- 손지선, 이수정 (2007). 가족 살해의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 1-17.
- 유은상 (2004). 낙관주의 및 귀인 방식과 건강의 관계. 연세대학교 본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1(1), 1-19.
-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3), 23-40.
-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윤희 (2002). 범죄학 개론. 서울 : 박영사.
-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황규대, 박상진, 이광희, 이철기 (1999). 조직행동의 이해. 박영사.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2), 107-121.
- Anderson, I. (2007). What is a typical rape? Effects of victim and participant gender in female and male rape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225-245.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artol, C. R. (1991).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arver, C. S., Pozo, C., Harris, S. D., Noriega, V., Scheier, M. F., Robinson, D. S., Ketchman, A. S., Moffat, F. L., Jr., & Clark, K. C. (1993). How coping mediates the effect of optimism on distress: A study of women with early stage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75-390.
- Dion, K. (1972).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valuation of children's trans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207-213.
- Doherty, K., & Anderson, I. (2004). Making sense of male rape: constructions of gender, sexuality and experience of rape victim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85-103.
- Drout, C. E., & Gaertner, S. (1994). Gender differences in reactions to female victim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267-278.
- Frese, B., Moya, M., & Megias, J. L. (2004). Social perception of rape: How rape myth acceptance modulates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fac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43-161.
- Haskell, M. R., & Yablonsky, L. (1983). *Criminology: Crime and criminality*.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Hogarth, J. (1971). *Sentencing as a human proces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lemmack, S. H., & Klemmack, D. L. (1976). The social definition of rape. In J. W. Marcia & L. B. Stanley (Eds.), *Sexual assault the victim and the rapist*. Massachusetts, D.C.: Health and company(pp.135-147).
- Koss, M. P., Leonard, K., Beezley, K., & Oros, C. (1981).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aggressive men*.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 138-157.
- McFatter, R. M. (1982). Purposes of punishment: Effects of utilities of criminal sanctions on perceived appropriat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255-267.
- Miller, J. (2002). The strengths and limits of 'doing gender' for understanding street crime. *Theoretical Criminology*, 6, 433-460.
- Rye, B. J., Greatrix, S., & Enright, C. S. (2006). The case of the guilty victim: The effects of gender of victim and gender perpetrator on attributions of blame and responsibility. *Sex Roles*, 54, 639-649.
- Seagel, W. (1941). *The quest for law*. New York: Knopf.
- Sellin, T. (1938). *Culture conflict and crime*.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Shepherd, J. (1981). *Sociology*. St. Paul, MN: West Publishing Co.
- Thomas, C. W., Cage, R. J., & Foster, S. C. (1976). Public opinion on criminal law and legal sanction: An examination of two conceptual model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7, 110-116.

Risk Perception and Value Judgment on Rape : Gender Differences

Beom Jun Kim

Kyonggi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risk perception, value judgment, and gender effect on rape. For this purpose, two studies were conducted. Study 1 examined the risk perception of rape and gender effect of the perce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respondents perceived rape as a serious crime, but its frequency estimation was not high. And the estimation of probability for others to become a rape victim was higher than the estimation for self. Moreover the estimation for women was higher than the estimation for men. In study 2, respondents were provided with four rape scenarios(homosexual / heterosexual rape), and asked to make value judgment regarding the severity of conduct and the degree of punishment and to attribute the offender's conduct and gender effect of those judgments. The results showed gender difference. In general, women showed sterner ethical standards, heavier sentencing, and less situational attribution than men did. Especially, women showed stronger gender effect on the case where a man raped a woman compared to other cases. However, men sentenced shorter sentence in the case where a woman raped a man compared to other cases.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Rape; Homosexual rape vs. heterosexual rape; Value judgment; Punishment; Gender Difference

원고접수 : 2007년 7월 12일
심사통과 : 2007년 8월 10일